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 안내자료



심 유 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생명공학과 사서주사보  
sims88@korea.kr



## 1909년~2009년 건강한국, 청정한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를 발간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09년 부산에서 수출우검역소와 1911년 우역혈청제조소의 설립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수의 전문기관으로 2009년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검역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상·하권 785쪽을 발간하였다.

100년사 발간사업은 2009년 2월 27일 검역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최정업 수의생명공학과장을 편집팀장으로 총 7명의 편집팀원(소병재, 심유정, 박주희, 강성필, 김기형, 이향심)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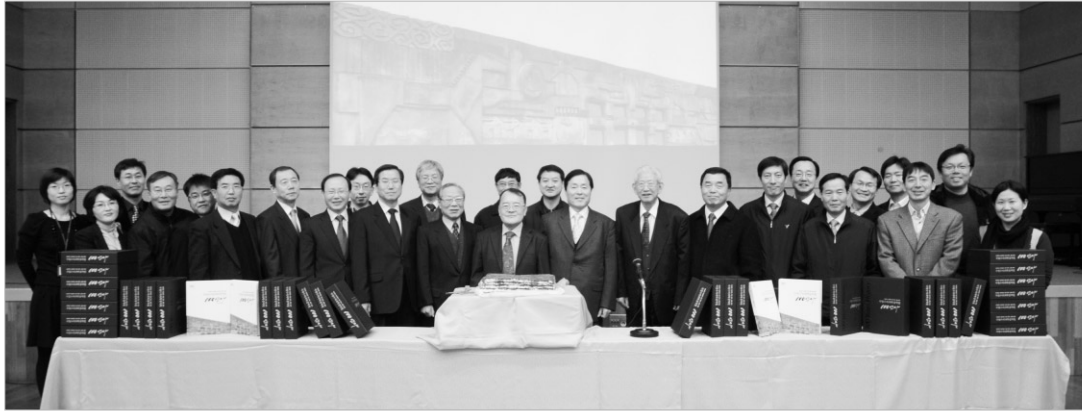
편집팀은 “찾아보게 되는 책, 보기 좋은 책,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책, 우리 원 직원에게 소속감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근간이 되는 책,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자 편집방향을 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의업무에 대해 크게 과거, 현재, 미래, 회고록순으로 나열하여 1편부터 9편까지의 목차를 구성하였다.

제1편과 2편은 과거 100년 동안의 검역원의 설립과 업무의 변천, 발자취로 구성하였으며, 제3편과 4편은 현재 검역원의 조직과 역할, 제도와 협력으로 구성하였다.

제5편과 6편은 미래 수의업무와 질병발생의 변화와 전망으로 기획하였다. 제7~9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돌아보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담을 담은 회고록과 부록으로 별도의 책자로 구성하였다. 5월 28일 사사(社史) 전문업체를 기술평



【그림 1】 수의사학 심포지움 축사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가를 통해 선정하여 발간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진비중을 높여 내용이해가 쉽고 시각적이고 현대적으로 출판하고자 편집 디자인 방향을 잡았다. 집필자 선정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6월 5일 국내외 수의학계와 검역원 원로 및 직원 포함 153명에게 원고청탁을 하였다. 6월 30일 1차로 원고마감을 하였으나 집필자가 많고 외국에 계신분도 있어 8월 21일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원고 마감을 할 수 있었다. 방대한 양의 원고에 대해 8월초부터 김옥경 검역원 전 원장님, 김순재, 최철순 교수님이 감수를 해주셨고 8월 24일부터 편집팀에서 밤낮으로 교정을 보고 부록을 작성하였다. 8.31일과 10.8일 두번에 걸쳐 100년사 내용과 하권 발간계획에 대해 1,2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검역원의 6대분야(조직, 행정부문, 검역부문, 방역부문, 축산물위생 부문, 수의과학연구부문, 동물약품/동물보호 부문)에 대하여 종합검토위원을 선정하여 원고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검증단계를 거쳤다. 9.28~10.9까지 책자 제목과 표지 디자인을 내부게시판에 공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지디자인은 안양시 건축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의업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검역원 본관 2층에 조각되어 있는 ‘부조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100년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검역원 직원과 외빈인사들의 축하메시지를 수집하였고, 집필진 색인과 질병명 색인을 수록하였다. 11월 24일 드디어 상권을 발간하였고 이어 2009년 12월 28일 회고록과 부록으로 구성된 하권을 발간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는 우리나라 수의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자료로써 수의사학 등 관련분야에서 수의학 발전에 활용될것으로 보인다. 100년사 발간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수의사료(獸醫史料)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나갈 예정이다. 